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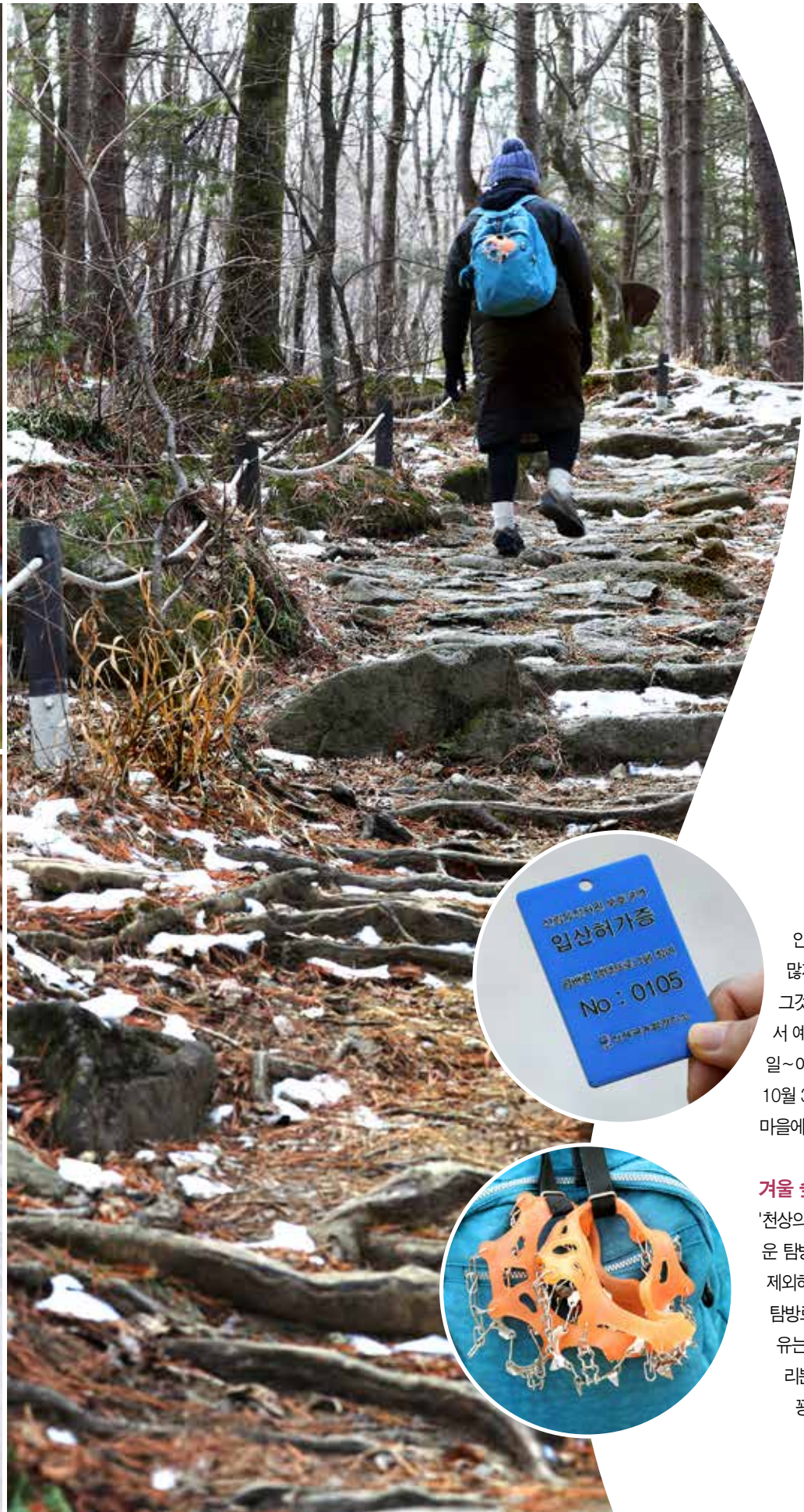


적막한 겨울 숲의 매력 인제 점봉산 곰배령 생태탐방로

해발 1천m 고지, 드러누운 곰의 배처럼 완만한 평원과 손타지 않은 원시림에서 봄부터 가을까지 온갖 야생화가 만발하는 ‘천상의 화원’ 곰배령. 꽃은커녕 계곡물마저 광광 얼어버린 혹한의 날씨에 곰배령으로 향했다. 나무도 잎을 모두 떨구고, 한 달 넘게 꿇긴 눈 소식에 눈꽃조차 스러져 험벗고 적막한 이때가 겨울 숲의 또 다른 매력을 오롯하게 누릴 기회다.

글 한미희 · 사진 전수영 기자





사실 눈이 시리도록 하얀 눈 세상이 보고 싶었다. 곰배령을 오르는 들머리인 설피 마을은 겨울에 눈이 하도 많이 쌓여 눈에 빠지지 않도록 덧신는 설피(雪皮) 없이는 다닐 수 없는 곳으로 유명하다. 하지만 강원도 역시 지난해 12월 초 이후 한 달 가까이 눈이 내리지 않았고, 기온도 높아 쌓였던 눈마저 대부분 녹아버렸다. 기대에 부풀어 급하게 새로 장만한 스패츠는 그만 무색해져 버렸다. 온화하던 날씨가 갑자기 영하 10도 아래로 떨어지고 체감기온은 영하 18도를 기록했던 1월의 어느 날 아침, 굴뚝마다 연기가 피어오르는 산골 마을을 지나 설피밭길과 곰배령길이 만나는 곳에 있는 주차장 식당에서 난로에 따끈하게 데운 차 한잔을 얻어 마시고 오전 10시 입산 시간에 맞춰 점봉산 생태관리센터로 향했다. 신분증을 확인하고 파란색 플라스틱으로 된 입산증을 받았다. 하산 시간 등 주의사항을 들은 다음 탐방로로 들어섰다. 들이쉬는 숨에 코안이 싸해졌다.

손타지 않은 원시림 속으로

설악산에서 오대산으로 이어지는 백두대간의 길목에 있는 점봉산(1천424m) 남쪽 자락의 곰배령은 동쪽 진동리와 서쪽 귀둔리를 오가는 고개였다. 점봉산은 한반도 식물군의 남방계와 북방계가 만나는 원시림으로, 우리나라 식물 서식종의 약 20%에 해당하는 850여종이 분포한다. 1987년부터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입산이 통제됐다. 백두대간보호지역, 설악산국립공원에 속해 있기도 하다. 서울에서 가려면 7~8시간은 족히 걸리는 오지 중의 오지였던 이곳은 양양고속도로 개통 이후 2시간 반이면 닿는 가까운 곳이 됐다. 입산 통제 22년 만인 2009년 7월, 곰배령 일부 구간을 개방하면서 입산 인원은 그해 하루 150명에서 현재 450명까지 늘었다. 연중 입산이 가능한 때가 많지 않다. 봄과 가을은 산불 조심 기간으로 입산이 안 되고 여름과 겨울에만, 그것도 일주일에 닷새(수~일요일)뿐이다.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에서 예약한 사람만 허가증을 받아 정해진 시간에 입산할 수 있다. 동절기(12월 16일~이듬해 2월 말)에는 오전 10시와 11시 단 두 차례뿐이다. 하절기(4월 21일~10월 31일)에는 오전 9시에 한 차례 더 가능하다. 설피 마을, 강선 마을 등 진동리 마을에 숙박하면 별도로 입산할 수 있다.

겨울 숲에 울리는 소리

'천상의 화원'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야생화가 만발하는 시절이면 허용 인원을 꽉꽉 채운 탐방객이 줄을 이었을 테지만, 겨울 숲은 한없이 적막했다. 마지막 짧은 오르막을 제외하면 5.1km 탐방로는 스틱이 거의 필요 없을 정도로 평탄한 편이다. 밧줄로 표시된 탐방로만 따라가면 되니 길을 잃을까 걱정할 이유도 없다. 쉬운 길이라고 서둘러 걸을 이유는 더더욱 없다. 천천히 걸으면 들리는 건 내가 내는 발소리와 숨소리, 옷깃 스치는 소리뿐이다. 발을 멈추면 오직 빈 나뭇가지를 훑는 바람 소리뿐이다. 양자바른 곳에서는 짹 짹 건 계곡물이 별을 받아 녹아내려 그 아래로 흐르는 물이 꿀렁꿀렁 소리를 내고 이름 모를 산새 우는 소리가 더해졌다. 나무가 우는 듯 갈라지는 듯 찌적, 쩡~ 하고 내는 소리는





고요한 겨울 숲에서만 들을 수 있는 자연의 소리다. 나무마다 매달린 이름표와 자기 소개를 하나하나 읽다 보면 발걸음은 더욱 느려질 수밖에 없다. 아슬아슬한 빙판도 종종 거쳐야 한다. 산에서 내려온 물이 탐방로를 뒤덮은 채 광광 얼어붙었다. 아이젠을 반드시 챙겨야 하는 이유다. 평지의 빙판에서는 슬쩍 미끄러짐도 타보고, 산속 강선마을 주민이 마련해 놓았을 디딤돌이나 흙을 조심조심 밟으며 지났다. 작은 계곡이 얼어버린 듯한 경사진 탐방로 앞에서는 아이젠을 챙겨 신고 한발 한 발 힘을 쥐 내딛는다. 날이 얼음에 박히는 소리도, 얼음을 단단하게 밟고 선 느낌도 새롭게 안 재미다.

탁 트인 고원의 칼바람에 가슴이 뻥

네 번째 다리를 건너 곰배령이 600m 남았다는 안내판을 지나면 지금까지보다는 약간 가파른 구간이라 호흡이 살짝 거칠어지지만 그것도 잠깐, 거센 바람이 몰아쳐 고개를 드니 탁 트인 평원이다. 우와, 하는 감탄사가 절로 터져 나왔다. 작은 점봉산과 점봉산 뒤로 설악산 대청봉까지 보이는 해발 1천164m 고지의 너른 평원에는 키 작은 나무와 풀이 거센 바람에 울고 있었다. 영하의 날씨를 모르는 캘리포니아에서 디자인한 구형 휴대전화는 주머니에서 꺼내 허공에 치켜들자마자 영하 18도의 칼바람을 맞고 까무룩 꺼져버렸다. 너른 평원이라고 함부로 발을 내디터서는 안 된다. 돌아나 나무가 깔린 탐방로에 서서 겸허한 마음으로 360도로 몸을 돌려가며 시력이 허락하는 먼 곳까지 눈길을 둔다. 미세먼지에 시달렸던 몸과 마음이 개운해졌다. 전망대 방향으로 가면 생태관리센터로 가는 하산로(5.4km)와 귀둔리로 가는 곰배골 탐방로가 있지만, 반드시 입산한 곳으로 내려가야 한다. 올라온 길보다 가파른 하산로는 눈이 쌓이고 얼음이 어는 겨울에는 위험하기 때문에 탐방이 금지된 상태다. 귀둔리 곰배골에서 곰배령을 오르는 곰배골 탐방로(3.7km)는 지난해 5월부터 탐방예약제가 시작됐다. 곰배골 탐방로는 산림청이 아닌 국립공원예약통합시스템(<https://reservation.knps.or.kr>)에서 예약해야 한다.



④ 강선마을 초소



⑤ 곳곳에 통나무 의자가 놓인 숲터가 있다.



① 점봉산 생태관리센터



② 산림유전자원 보존원



⑦ 곰배령 정상



③ 강선마을 펜션 안내판



⑥ 계곡을 건너는 세 번째 다리



인제 하추자연휴양림 가리산천 따라 호젓한 산책길

곰배령 서쪽 인제읍 하추리에 있는 하추자연휴양림은 아담하고 단출한 편이다. 귀둔리 곰배골에서 곰배령을 오르면 적절한 숙소다. 휴양림에서 곰배골 입구인 설악산국립공원 점봉산 분소까지 차로 20분이 채 걸리지 않는다.

글 한미희 · 사진 전수영 기자

강원도 홍천을 거쳐 인제군으로 들어가면 아름다운 자작나무숲으로 유명한 원대리를 지나 소양강 줄기를 따라간다. 혹은 서울 양양고속도로 인제 나들목에서 빠져나와 내린천을 따라 구불구불 올라가도 된다. 고랭지 농산물과 산나물, 약초가 유명한 산골 마을 하추리로 가는 길이다. 하추리 입구인 하추리 계곡에서 가리산천을 따라 10분 정도 들어가면 하추자연휴양림이 나온다. 가리산천을 사이에 두고 길옆에 붙어 있어 다리를 건너면 바로 숙소다.

가리산천을 따라 휴양림 양쪽으로 만들어진 산책로가 호젓하니 겨울 풍경을 즐기기에 좋다. 키 큰 나무들 사이로 난 좁은 오솔길, 눈과 얼음으로 뒤덮인 계곡과 바위 옆 데크길, 낙엽과 잡목, 갈대가 편안하게 어울리는 산길이 이어진다. 오래전 내린 눈이 산그늘 아래서 녹지 않고 얼어 발을 디디면 파사삭 부서지는 소리가 산책의 배경음악이 된다. 작은 계곡을 따라 늘어선 야영장으로 올라가는 '산나물 하늘지붕길'은 약간 가파른 편이다. 사방에 산마늘, 곤드레, 참취, 곰취, 병풍취, 돌미나리 등 산나물과 삼지



구엽초, 당귀 등 약초가 지천이다. 한겨울이라 식물 대신 이름표만 눈에 띄는 경우가 많지만, 당연히 함부로 들어가거나 채취하면 안 된다. 대신 산나물을 구경하거나 숲에서 쉴 수 있도록 곳곳에 산나물 전시장과 명상 숲을 마련해 놓았다. 무채색인 겨울 숲이지만 흰말채 나무는 꽃도 열매도 없이 새빨간 목은 가지로 더욱 강렬하게 존재를 드러내기도 한다.

숙소는 나무로 지은 콘도형 숙소인 산림문화휴양관에 4실, 별채인 숲속의 집 7동으로 많지 않은 편이다. 가파른 언덕을 올라가야 하는 숲속의 집(4인실) 5동은 안전과 추위 문제로 11월 중순부터 이듬해 3월 말까지 운영하지 않는다. 주변에 식당이나 가게가 없고, 군청이 있는 인제읍이나 반대 방향의 면 소재지인 현리 모두 차로 30분가량 걸리기 때문에 식료품 등은 미리 준비해야 한다. ❶

Tip

[이용 방법 & 요금]

하추자연휴양림
홈페이지(www.hachuhuyang.go.kr)에서
사용 예정 전월 1일부터 24시간 예약할 수
있다. 사용 시간은 오후 2시부터 다음날
정오까지다. 규정 인원내 맞게 침구와
요리기구, 식기가 갖춰져 있으며 타월을
포함해 개인 세면도구는 준비해야 한다.
휴양림 안에서 버섯이나 산나물을 채취하면
안 된다. 야영장에는 전기 콘센트가 준비돼
있다. 가스버너와 전기 그릴은 사용할 수
있지만, 숯불이나 장작을 태우면 퇴장 조치
된다.

▲ 산림문화휴양관

4인실(4실) 비수기(9~6월) 평일
5만원/주말·휴일 6만원, 성수기(7~8월)
7만원

▲ 숲속의 집

6인실(2동) 비수기 평일 7만원/주말·휴일
8만원, 성수기 10만원
4인실(5동) 비수기 평일 5만원/주말·휴일
6만원, 성수기 7만원(동절기 이용 불가)

▲ 야영장

15동 비수기 2만원, 성수기 3만원

[문의]

하추자연휴양림 ☎ 033-461-0056